김동철 "文 정부와 연정 마다할 이유 없다"

국민의당 새 원내대표 중책…정책위의장은 이용호

대선 패배 당 재건·내년 지방선거 대비 등 과제 산적

국민의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김동철 의원(4선·광산 갑)이 16일 선출됐다.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으로는 이용호 의원(초선·남원·임실·순창군)이 당선됐다.

김동철-이용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데 이어 2차 결선투표에서도 김관영-이언주 후보를 상대로 승리했다.

김 원내대표는 취임 일성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올바른 방향과 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면 적극 협조하겠지만, 해선 안 될 일을 한다면 앞장서서 막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산적한 상황이다. 당장, 5·9 대선 패배의 충격에 빠진 국민의당을 재건해야 한다. 집권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탓에 패배로 인한 후유증도 깊은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초반 국민적 호응을 끌어내며 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야당이자 제3당으로의 입지도 강화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내각에 국민의당 의원 기용설과 민주당 발(發) '통합론'으로 뒤숭숭한 당을 추스르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 당의 결집을 통한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반영하듯,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대선은 민주당이 실력보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실책과 과오에 힘입어 반사적으로 승리한 면도 없지 않다"며 "문재인 정부는 겸손하게 야당과 협치하며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진정한 연정을 민주당 정부가 제안한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니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연정은 당과 당이 하는 것이다. 지금 개별 의원에 접촉해 장관직을 제안하는 건 사이비연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론 및 연대론에 대해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은) 재를 뿌리는 일"이라면서도 정책연대에 대해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임 원내대표가 주요 쟁점 현안에서 국민의당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율해낼지도 관심거리다. 집권여당의 의석이 과반에 못 미쳐 국회 선진화법을 넘어 개혁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180석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민의당으로선 정치적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를 잡을 수 있다.

특히, 신임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도 조속히 인선해 차기 지도부 선거 때까지 당을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도 안고 있다.

한편, 김동철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으로 국민의당 내부 권력 지형도 미묘한 변화가 예상된다. 김 원내대표가 당내 호남 중진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의 당내 입지가 과거에 비해 약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주승용 전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다면 호남 중진들의 입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의 과제는 위기국면에서 당의 단합과 단결"이라며 "더욱 낮은 자세로 당내 소통에 나서고 국회에서는 당당하게 제3당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김 원내대표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야 4당과 협치·조율 최대 과제

우원식 민주 원내대표…총리 청문회 첫 시험대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로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을·3선)이 16일 선출됐다.

우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61표를 얻어 54표를 얻은 경쟁자 홍영표 의원을 7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경선 직후 기자들을 만나 "개혁의 순서에 제일 앞에 세우는 것이 민생"이라며 "원내에 즉시 100일 민생 상황실을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과의 협치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뿌리를 같이하는 당이라는 점에서 우리 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넓다"며 "대선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흐트러진 부분을 추슬러 가며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우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된 배경에는 대야 협상 및 포용력에서 장점이 있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의원들의 마음을 끌어당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우 원내대표 지도부에 대해서는 지금의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 4당과의 협치를 효과적으로 조율하느냐가 최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 시험대는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다. 야당의 반발 속에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차질을 빚는다면 새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원내 협상을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무사통과'시키는 것이 우 원내대표가 꿰어야 할 첫 단추인 것이다.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잘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지도 관심이다. 과반 의석에 못 미치는 민주당으로선 개혁 입법과 관련, 입장이 다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등 보수진영 정당의 반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당이나 정의당 역시 대선 기간에는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만큼 이후 협력관계를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일자리 추경' 처리가 주목된다. 여기에 당·청 관계도 효과적으로 조율, 개혁 동력을 극대화하는 것도 핵심 과제다.

▲1957년 서울 출생 ▲경동고 ▲연세대 토목공학과 졸업 ▲연세대 환경공학과 석사 ▲17, 19, 20대 노원을 국회의원 ▲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조국수석 모친 체납 세금 완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이 체납된 세금을 최근 완납했다고 16일 밝혔다.

웅동학원 박정숙 이사장은 이날 웅동중학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지난 3년간의 지방세 체납으로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2013년 별세한 제 남편인 고(故) 조변현 전 이사장께서 장기 투병했던 관계로 여력이 되지 않아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했는데, 보도 이후 급전을 마련해 2248만640원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웅동중학의 전신은 1908년 건립된 계광학교로, 당시 이 학교 교사들은 독립운동에 투신한 이유로 처벌받았고 이분 중에는 조 전 이사장의 숙부 등등 창녕 조문(昌寧 曺門) 일가들이 많았다"며 "이런 이유로 조 전 이사장은 1985년 고향 사람들의 부탁으로 거액을 들여 재정 사정이 어려운 웅동학원을 인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웅동학원이 체납하게 된 근본 원인은 보유한 수익재산인 산을 매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며 "조 전 이사장은 물론 저도 수익재산 매각을 통해 재정 상황을 개선하려 노력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조 전 이사장도 저도 학교의 실질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를 통해 사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 재단 인수 이후 사립재단에서 흔한 이사장용 승용차, 법인카드, 활동비 등을 받은 적 없다"며 "최근 일부 정당이나 언론이 재단을 탈세 족벌부패 재단으로 몰아갔던 바, 실태를 조사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당·청 갈등 없어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오른쪽)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장미꽃을 건넨 후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청 힘 모읍시다" 임종석-추미애 환담 훈훈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6일 국회를 방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예방했다.

추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정권교체는 온 국민이 주신 기회다. 당·청이 숙제를 잘 풀어가야 한다"며 "집권여당이 청와대와 정부, 대통령을 잘 뒷받침하고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비서실장도 우리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 데 청춘을 바친 열혈 동지로, 당의 목소리를 전할 창구 역할과 가교 구실을 해내리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임 비서실장도 추 대표에게 장미꽃을 전달하며 "사기는 제가 샀지만 마음은 대통령이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임 실장이 신임인사차 국회를 찾았을 당시 추 대표와의 만남이 불발, 갈등설이 고조됐고 이 때문에 이날 만남에 더욱 관심이 모아졌다.

추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대화를 시작하면서 "선거 때 미룬 병원 예약 때문에 앞서 임 비서실장과 만나지 못했다. 선거 때 미룬 치과 예약 때문에 3시간 동안 대공사를 했는데 비서실에서 일정 체크를 못하는 착오로 본의 아니게 아우를 '따시킨' 누나로 속좁은 인간이 됐다"고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우를 계속 사랑하겠다. 꽃을 들고 온 아름다운 남자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불화설 진화에 나섰다.

이에 임 비서실장은 "이번 선거는 모두 혼연일체가 됐다"며 "국정운영에서도 한마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당의 목소리를 크게 듣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野 이낙연 청문회 검증 온도차

한국당 "송곳 검증"…국민의당·바른정당 "발목잡기 안할 것"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이낙연 후보자의 24~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인사청문특위는 이 후보자의 상속재산 신고와 아들 병역면제 등을 둘러싼 의혹을 들여다보면서 치밀한 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아들은 2001년 대학교 1학년 때 3급으로 현역 입대 판정을 받았다. 이후 운동 중에 어깨를 다쳐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2차례에 걸친 재검에서 재발성 탈구로 5급 판정을 받아 군대에 가지 않았다.

또 이 후보자 부인이 1989년 3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전입했다가 9개월 만인 그해 12월 평창동으로 다시 주소를 옮긴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은 위장전입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여기에 이 후보자가 1991년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땅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전남개발공사가 이 후보자의 부인 그림을 구매한 것도 쟁점화 할 태세다.

민주당과 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이 5대 5로 팽팽한 균형을 맞춘 가운데 국민의당(인사청문위원 2명)과 바른정당(인사청문위원 1명)은 일방적 공세보다는 합리적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민의당은 새 정부가 탕평인사 차원에서 첫 총리를 호남 출신 인사로 지명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역 민심 동향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지사 출신의 이 후보자에 합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공세에 나선다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견제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신임 김동철 원내대표는 인사청문위원에 광주와 전남 지역구 의원들을 배제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바른정당도 '의도적인 발목잡기'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실에 근거한 합리적 의혹에 대해서는 치밀한 검증에 나서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비합리적 정책 공약에 대한 총리로서의 입장은 정확하게 따지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

유한회사 J&Y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 관련업무를 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NPL 투자(부실채권) 실전강좌 모집

▶접수기간 : 2017. 5. 18 ~ 2017. 5. 26
▶자 격 : 본인이 직접 · 간접 투자 하면서 배우실 분
▶수업기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30일 속성코스(실전전문) 2017. 6. 3 ~ 2017. 7. 2
▶인 원 : 선착순 10명
▶비 용 : 100,000원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J&Y 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